

2012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폴라쥬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민 선

폴라쥬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using Collage on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민 선

폴라쥬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민 선

김민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진 원 장 (인)

2011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4
1. 미술교육의 목적	4
2.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비교	8
제2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13
1. 플라쥬의 개념과 역사	13
2. 플라쥬 작가와 작품	15
3.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20
4. 자아존중감과 플라쥬 미술활동	22

제3장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을 위한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대상	24
제2절 연구절차	25
제3절 측정도구	26
1. 정신건강 척도	26
2.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27

제4절 자료처리	28
1. 통계적 분석	28
2. 미술활동에 따른 행동변화 분석	28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제2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31
제3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4
제4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구체적 변화	37
1. 사례 1	37
2. 사례 2	38
3. 사례 3	39
제5장 결 론	41
참고문헌	44
부 록	47
도 판	53

표 목차

표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차이점>	12
표 2 <6회기 동안의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내용>	24
표 3 <통제,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 사전, 사후 차이 검증>	31
표 4 <집단 별 사전 정신건강 점수 하위 5명 학생 사후 검사 점수>	32
표 5 <집단 별 사전 정신건강 점수 하위 5명 학생 사후 검사 점수>	32
표 6 <통제, 실험 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차이 검증>	34
표 7 <집단 별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 하위 5명 학생의 사전 검사 점수>	35
표 8 <집단 별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 하위 5명 학생의 사후 검사 점수>	35

그래프 목차

그래프 1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집단 간 비교>	30
그래프 2	<취미 활동에 대한 집단 간 비교>	30
그래프 3	<미술 학원 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30
그래프 4	<통제,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 사전, 사후 차이 비교>	31
그래프 5	<통제,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 사전, 사후 차이 비교>	34

도판 목차

- <도판 1> 과일접시와 유리잔, 브라크, 종이에 목탄 빠삐에폴레,
61×44.5, 1912, 개인소장 53
- <도판 2> 바이올린, 브라크, 71.8×51.8, 1914, 클리브랜드미술관 53
- <도판 3> 테노라가 있는 정물, 브라크, 캔버스에 유채 목탄 초크
연필 빠삐에폴레, 85.2×120.3, 1913, 뉴욕 근대미술관 53
- <도판 4> 바흐의 아리아, 브라크, 빠삐에폴레, 61.9×46, 1913 53
- <도판 5> 내사랑(Ma Jolie), 피카소, 100×65.4, 1911,
뉴욕 모던아트 미술관 54
- <도판 6> 기타, 피카소, 목탄 크레용 잉크 및 플라쥬, 65×50,
1912, 뉴욕근대미술관 54
- <도판 7>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피카소, 캔버스에 유채,
등나무 의자문양에 유포, 27×34.9, 1912,
파리 피카소미술관 54
- <도판 8> 쉬즈 병, 피카소, 종이에 목탄 빠삐에폴레, 1912,
65.4×50, 1912,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학 미술관 54
- <도판 9> 폴리네시아 바다, 마티스, 캔버스에 과슈로 색칠된
종이로 장식, 196×314, 1946, 조르주 폰피두센터 55
- <도판10> 폴리네시아 하늘, 마티스, 캔버스에 과슈로 색칠된
종이로 장식, 200×314, 1946, 조르주 폰피두센터 55
- <도판11> 천일야화, 마티스, 1912, 카네기미술관 55
- <도판12> 이카루스, 마티스, 색지작업(종이플라쥬), 41.9×26,
1943, 조르주 폰피두센터 56
- <도판13> 푸른 누드 IV, 마티스, 색지작업(종이플라쥬), 103×74,
1952, 56

<도판14> Vegetation, 마티스, 종이에 과슈로 채색하여 오려 붙이기 174.9×81, 1951, 개인소장	56
<도판15> 페어블라섬 하이웨이, 호크니, 포토콜라주, 198×282, 1986, 개인소장	57
<도판16> 펄스텐버그 광장, 호크니, 포토콜라주, 88.9×80, 1985, 개인소장	57
<도판17> portrait of John Kasmin, 호크니, Photographic Collage, 106×75.6, 1982, Collection David Hockney	57
<도판18> Big Torn Campbell's Soup Can, 앤디워홀, 1962	58
<도판19> Kloriole, 프랭크스텔라, 161.3×219.7, 1996, PYO Gallery LA	58
<도판20> Portrait of Gian Enzo, 줄리앙슈나벨, oil, plates, bondo on wood, 60×48, 1987	58
<도판21> Portrait Fred Hughes, 줄리앙슈나벨, oil, plates, bondo on wood, 60×48, 1987	58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using Collage on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Kim, Min seon

Advisor : Prof Jin, Won Jang

Major in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ollage as one of art activities provides mental and physical comfort and emotional support for adolescents. This study aims to analyse various psychological elements inherent in adolescents and to identify what effect art activities using collage have on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31 students in the 2nd grade from four classes of a middle school in Gwangju and the effect of art activities on thei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was analysed. They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class A and B) and the test group(class C and 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ng mental health, it was discovered that their mental health got improved after the collage art program and its significance was $p < .01$. It means that the collage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of the subjects.

As a result of analysing self-esteem, it was discovered that the mean value of self-esteem in the test group increased to 2.50 after the program and its significance was $p < .01$. It indicates that the art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self-esteem of the subjects.

In conclusion, it was verified that collage art therapy contributed to

improved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 collage art therapy program used in this study had more effect on mental health rather than self-esteem.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s: First, the collage program was provided for a short period of 6 sessions and the subjects were no more than 131. So, it is hard to gain exact results on it and generalize the results for other adolescents.

In spite of the limits of the collage program in this study, in considering that collage program makes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bette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more diversified program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enough time should be developed.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흔히 청소년 시기는 제 2의 성장기로 불리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이다. 이 때 확립되는 가치관과 자아성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같은 발달과업¹⁾을 가지는 중요한 시기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심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거나 일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²⁾ 더욱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화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정보, 문화, 미디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정체성 확립에 있어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지식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날 많은 유해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향상을 위해서는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방식보다는 능동적인 사고를 고양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유익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런 교육의 총체적 대안으로 미술활동을 통한 수업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미술활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안정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실제 미술을 매개로 한 임상활동에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과거 미술활동을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은 정신지체나 언어 장애, 정신질환, 치매 등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들의 임상치료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점차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일반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을 위한 도구로서도 점차 그

1)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들이다.

헤비그허스트(R. Havighurst)는 개인이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을 잘 성취하면 다음 단계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기초를 마련하나, 그렇지 못하면 장차의 과업수행에 곤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발달과업은 연령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다.

2) 이희정,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1.

사용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사진이나 그림을 가위로 잘라 붙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표현의 폭을 넓혀 새로운 심상을 발견하거나 청소년의 창의성을 계발 시킬 수 있게 한다.

성장기의 급격한 신체, 정서적 발달로 인해 내외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욕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내적 욕구 표출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분노의 표출 혹은 희망에 대한 상징 등 대상자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을 추정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저항, 수줍음 등을 줄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향후 미술교육의 의미를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시킴으로써,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³⁾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미술교육과 미술활동, 플라쥬,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형성 등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문헌과 선행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본 수업에서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수업의 진행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 접근방법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향후 플라쥬 미술활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둘째, 본 연구를 위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현재 일선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셋째, 교육 과정 중 신뢰도가 검증된 정신건강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 및 회기 별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 플라쥬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미술활동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플라쥬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6회기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에 걸친 연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3) 자아존중감을 ‘영혼의 생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1. 미술교육의 목적

미술교육이란 미술과 교육의 합성어로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표현해내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의 형식인 조형성을 이해하고 미술 표현인 창작 활동을 하며 미술의 가치를 향수 하는 감상 활동이 필요하다.⁴⁾ 또한 지적 발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일반 학문적 교과와는 달리, 미술의 본질과 미술이 전수되어 오던 독특한 활동체계에 따라 미술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미술교육은 그림그리기를 가르치는 교육, 즉 미술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미술이라는 한정된 틀에 접근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입장에서 미술을 교육하는 ‘미술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교육이 1950년에 들어서면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미술이 수단이 되는 미술교육 형태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그림그리기가 목적이 아닌 심미적 인간형성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미술교육’은 ‘미술과 교육’과 그 개념적 차이가 있다. 미술교육은 ‘교과’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폭넓은 교육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 즉 박물관, 미술관, 사회문화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일련의 포괄적 미술교육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반면 미술과 교육은 미술이 하나의 공통교과로써 채택되어 학교의 어린이 및 학생들 누구에게나 다 같이 가르쳐지는 방식의 교육, 또는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교양 내지 전공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방식의 교육을 의미한다.⁵⁾

지식 위주의 일반 학문적 교과는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이나 학문적 이론

4) 김성희, 『전공미술』, 서울, 2006, p. 4.

5)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갑을 출판사, 1989.

등을 주로 수, 언어 등과 같은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특성이 있지만, 미술교육은 지식의 체계나 학문적 논리성이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서, 개성, 직관, 창조성 등 과학적, 논리적, 개념적인 것과 거리가 먼 상상의 세계, 주관의 세계, 감정의 세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그렇기에 어떤 정해진 교육 방법을 규정짓기 보다는 본질과 독특한 표현방법에 따라 학습자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학습활동 전반에 걸쳐 수동적이며, 학습자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교육”⁷⁾이다.

우리가 미술을 왜 배우는지, 미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근대 이후 서구사회를 움직여 온 중심적인 개념은 이성 혹은 합리성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서구의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인간심성의 다른 측면인 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⁸⁾

미술교육은 시대별 목표와 학자들의 이론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미적안목의 육성, 조형능력의 계발, 창의성의 함양으로 나뉜다.⁹⁾ 미술교육을 통해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 및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길러 전인적 인간 양성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미술은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다양한 매체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아표현 욕구를 해소한다. 즉 미술 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의미는 그 표현 활동이 자아 표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관찰하고 정서지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

6)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 274.

7) 권준범 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p. 7.

8) 진교훈 외, 『오늘의 철학적 인간』, 경문사, 1999, p. 221.

9) 이 민 외, 『전공 미술』, 신수서원, 2006, p. 6.

다.

둘째, 시 지각 훈련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길러준다.

인간은 시각적 자극을 인식하고 변별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시 지각은 단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적 안목과 연결이 되어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¹⁰⁾이 중시되는 미래의 삶에 더욱 중요한 능력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각적 현상들을 미적 안목으로 개선하고 가꾸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좌, 우뇌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준다.

미술은 인간의 균형 있는 발달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체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는 지나치게 논리적, 순차적, 분석적, 언어적, 개념적, 수리적인 것 등을 추구하는 좌뇌적 성향이 매우 강한 교육이다. 이러한 좌뇌 위주의 교육은 진정한 인간 발달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베티 에드워즈(Betty Edwards)¹¹⁾는 그의 저서 <우뇌로 그림그리기,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에서 대상을 우뇌로 보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든지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사람들이 청소년 이후에 미술표현 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조잡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좌뇌 주도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며, 몇 가지 프로그램에 의한 시도를 통해 우뇌로 전환하면 즉, 보는 방법을 바꾸면 누구나 잘 그리게 된다고 주장한다.¹²⁾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좌뇌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다. 물론 어느 교과든 한쪽 두뇌만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활동을 통한 좌뇌와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다.

넷째, 질서와 자유 개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무엇보다도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된다. 또한 자유 속에서 질

10) 시각 이미지의 활용능력으로 시각적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1) 두뇌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각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학자인 에드워즈는 1979년부터 20년간의 우뇌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인간 두뇌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보 처리한다는 이론을 두뇌의 기능을 활용하여 우뇌를 활용한 미술 실기 지도 방법을 제시했다.

12) 김인실, 「중등 미술 교육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5.

서를 갖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표현의 내용과 과정, 표현기법에서도 자유가 부여되며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답이 없는 미술은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결과물을 탄생시켜 그 속에서 창의성과 개성의 함양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바라보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로인해 자유 및 질서 의식도 함양된다.

다섯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스스로 만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술활동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펜을 잡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무언가를 그려보는 인간은 그런 활동을 통해 본능적인 즐거움 및 유희를 느낄 수 있다. 쉴러(Schiller)는 미술을 ‘심미적 놀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의 본적인 성향을 신체적 성질인 감성적 본능(Instinct Sensible)과 지적인 성질은 형식적 본능(Instinct Formal)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인간의 놀이 또는 유희의 욕구를 차원을 높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미술 교육을 통해 미적안목을 기르고, 표현과 이해, 감상을 통해 삶의 메마름에 대한 결핍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¹⁴⁾

13) 미적 교육을 통해 미의 이념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하여 이상적인 인간성을 실현하고자 한 쉴러는, ‘감각적 본능’이 ‘자연적 인간’의 본성이라면, ‘형식적 본능’은 ‘이성적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였다. 전자가 인간을 현실적 상황의 제약을 받는 상태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을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근원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14) 최동령,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 41-47.

2.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비교

미술치료¹⁵⁾는 예술치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작예술 중 특히 미술적 매체와 방법을 치료와 접목한 분야로, 그림그리기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인간이 창조적이고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이 용어는 1961년 ‘미술치료회보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울만(Ulman)의 논문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다. 울만은 교육, 정신치료, 재활치료 등 많은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미술치료는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시각예술(Visual arts)¹⁶⁾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격의 통합 또는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 미술치료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이나 적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미술치료는 결국 이미지 표출과정에 있어 비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실, 방어, 왜곡, 억제 되어있는 상황을 명확한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자기동일화, 자기실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정신적인 세계를 외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된 정신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관찰하려는 활동이다. 인간의 잠재된 정신세계는 적절한 추출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미술치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술시간에 부분적이거나 적용을 하면 심리치료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미술치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심상으로 생각한다. 말을 배우기 전 심상으로 우리는 먼저 사고한다. 즉 어머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심상을 형성하게 된다. 삶의 초기 경험이 중요한 심상의 요소가 되며, 그 심상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술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15)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재활, 정신질환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16) 시각 예술은 예술의 한 형태로,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표현형식을 가리킨다. 시각 예술은 시각 이외의 감각에 호소하는 다른 형태의 예술과 구별된다.

17) 권준범, 「미술심리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재구성.

경험이 언어적으로만 치료되기보다는 심상을 통하여 그려지고 해석된다. 둘째, 미술은 치료대상자의 방어를 감소시킨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이다. 다른 의사소통 양식보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언어적인 표현방식은 방어가 일어나기 쉽다. 방어가 일어나면, 자신을 통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방어를 쉽게 일으키지 않는 심리치료방법이 필요하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이 제작되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형상들을 접하기도 한다. 또한 가끔은 창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미술치료의 가장 흥미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예상치 못했던 인식은 환자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셋째,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 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자료가 환자로부터 즉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며, 저항이 강한 내담자의 경우 구체화된 사물이나 그림의 형상 속에서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당시의 감정을 회상할 수도 있다. 즉 미술작품이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작품 변화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과 동시성을 지닌다.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며, 대체로 한 가지씩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술은 어떤 문법, 논법 등의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즉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 차원을 넘어선 활동인 것이다. 미술은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연관성을 갖는다. 대상들 사이의 연관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경험된다. 미술의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그림 속의 대상들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 결합과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감정, 특정한 속성, 생활환경 등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므로 개인과 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 감상, 정리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띄게 된다. 체내의 에너지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 발산이라고 해석된다.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은 미술을 매개로 한 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자칫 “동일한 활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은 차별된 영역으로 서로 다른 활동으로 봐야한다. 미술치료사이며 예술가인 크라머(Kramer)는 미술은 인간 경험과 동일한 것을 창조함으로써 인간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미술치료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적 요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¹⁸⁾ 미술치료는 미술의 미적 요소와 제작기술의 습득이 치료 목표에 뒤 따라 오는 종속적인 활동으로 작품의 결과 보다는 미술작업 과정을 통한 치료자와의 상호작용과 과정 자체에 비중을 둔다. 즉, 미술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미술 과정에서 치료자와 대상자가 서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한다. 미술치료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 안에서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현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활동이며 치료이다.¹⁹⁾ 반면 미술활동은 치료의 목적처럼 미술 과정도 중요시되지만, 그보다 미술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주가 되는 활동이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목표의 차이이다. 미술교육은 지식, 기술전달 등 미적인 감각 교육을 주된 목표로,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정서(심리), 행동 인지 등 치료를 주된 목표로 둔다.

둘째, 전문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술교육은 미적 감각교육을 증진시키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중시하지만, 미술치료는 대상자의 심리, 행동, 인지, 사회성 등 여러 발달 영역을 중시한다.

셋째, 매체의 영역과 다양성이다. 미술치료는 미술교육과 달리 상황과 내담자에 따라 매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매체의 선정에 있어 치료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령, 산만한 대상자의 경우 지점토, 철사, 연

18) 차혜경, 「미술치료의 정신적 안정 효과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4.

19) 장성금, 「자폐장애가 있는 초기 청소년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20.

필 등 통제적이고 단단한 매체를 사용하지만 위축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물총, 물감, 신체를 이용한 페인팅 등의 놀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육은 기술전달이 내용의 핵심이지만 미술치료는 치료자 내담자 둘 간의 신뢰감 형성, 관계 형성이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은 미술을 매개체로 하는 활동이지만, 그 목적은 확연히 다르다.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차이점을 통해 그 치료적 효과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는 예술치료의 한 부분으로써 미술 매체와 방법을 치료와 접목한 분야이다. 교육적 입장을 취하는 미술교육과 차이를 갖지만 이 둘은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보다는 과정상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상에는 창의성, 사고력 증진, 만족감 등의 감정적 목표로 공통점을 갖는다.²⁰⁾

둘째, 미술교육에서의 작품은 개인의 창의성과 감정을 표현한 미적 조형물이지만 미술치료에서의 창작품은 내담자의 감정표출을 할 수 있는 치료사와의 의사소통의 통로이다.²¹⁾

셋째, 미술교육이 미적 요소와 기술의 습득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면, 미술치료는 미적 요소나 기술의 습득은 치료목적에 종속적인 것이며, 미술작업 과정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미술치료가 강조하려는 것은 개인의 내면세계, 느낌, 생각 그리고 사고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²²⁾ 이는 미술치료가 미술작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의 장점들로 미술활동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에도 그 활용 범위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획일화된 미술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 이근매 외,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8.

21)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한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대 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2.

22) Malchiodi.C.A, 최재영. 김진현 역, 『미술치료』, 조형교육, 1997.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차이점>²³⁾

미 술 교 육	미 술 치 료
기술을 가르침	지시하지 않음
사물의 고유색상을 사용하도록 함	사물의 심리적인 색상을 허용 함
창조성에 있어 결과를 중시	창조성에 있어 과정을 중시
지적인 표현을 중시	내면의 솔직한 표현을 중시
타 아동과 작품이 비교되기 용이	타 아동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음
융통성, 상상력 결여될 수 있음	융통성, 상상력 촉진되거나 개발
미술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음	미술로 표현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킴

23) 이근매 외, 위의책,

제2절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1. 꼴라쥬의 개념과 역사

꼴라쥬²⁴⁾는 큐비즘 화가들이 화면에 재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의 일부분에 종이나 형겔 등을 사용한 빠삐에 꼴레에서 발생한 것이다. 빠삐에 꼴레는 영어로 페이퍼 꼴라쥬로서 입체주의 시대에 사용된 꼴라쥬의 일종이다. 종이에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화면에 종이, 색종이, 신문지, 잡지 등 오브제의 성격을 말한다.

브라크가 처음 시도했던 빠삐에 꼴레는 종이를 화면에 붙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는 오래된 신문, 악보, 벽지의 단편을 부착하여 실제 물체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특성의 물체를 붙이게 되면 화필에 의한 재현묘사보다 한층 더 분명한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견고한 화면 구성이 요구된다. 손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물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빠삐에 꼴레는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활성화되어, 1925년에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미술의 기본조형요소로 많은 역할을 한다. 입체주의의 빠삐에 꼴레에서 발견된 꼴라쥬는 화면 위에 종이나 천, 나무껍질, 신문지 형겔 그리고 색종이 등을 풀로 붙여 구성한 것으로 흔히 빠삐에 꼴레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최초의 꼴라쥬 기법은 브라크와 피카소가 자신들의 그림에 화면 구성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지와 잡지 등을 붙여 표현하는 기법이었으나, 그러한 방법이 점차 발전하여 온갖 것을 다 붙일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²⁵⁾

꼴라쥬와 빠삐에 꼴레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투스(Lepetit Larousse)사전에는 “꼴라쥬는 하나의 받침판 위에 각기 다른

24) 입체주의의 화가 피카소가 ‘등의자가 있는 정물’에서 쓴 기법으로서 화면에 실제적 느낌을 도입하기 위하여 성냥, 악보, 트럼프, 신문, 노끈, 인쇄된 종이 등을 복합적으로 화면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화면에서 추구했던 입체적 기법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색감과 질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25) 백현주, 「중학교 미술교육의 창의성증진 학습지도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9.

재료의 단편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으로 특히 종이만을 사용하고 종이에 그려진 이미지의 가치보다 주로 종이 자체의 질감과 색채의 가치로서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을 **빠삐에 끌레라** 부른다”²⁶⁾ 라고 되어있다. 또한 미국의 평론가 알프레드바(Alfred H. Barr, Jr)²⁷⁾는 그의 저서 ‘**큐비즘과 추상예술 (Cubism & Abstract Art)**’에서 **빠삐에 끌레**와 **폴라쥬**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종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폴라쥬**’라고 불렀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이 조각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어 **빠삐에 끌레**라고 불렀다.

이상의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폴라쥬**와 **빠삐에 끌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빠삐에 끌레**를 **폴라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두 번째, **폴라쥬**는 기법으로, **빠삐에 끌레**는 재료명으로 보는 견해

세 번째, **빠삐에 끌레**와 **폴라쥬**를 그 재료와 개념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구분하는 견해

이처럼 분화된 **빠삐에 끌레**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큐비즘** 시대에 사용된 **폴라쥬**의 일종으로 종이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종이는 종이에 그려진 이미지와 가치보다는 주로 종이 자체의 질감과 색채의 가치로서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폴라쥬 양식은 미술의 입체주의(Cubism)에서 하나의 회화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폴라쥬** 양식은 하나의 예술표현 형식의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되었다. **폴라쥬**는 평면의 그림 위에 현실의 물질을 풀로 붙임으로써 회화의 실제감을 강조하고 조형상 의미를 더해 주는 효과를 가진다. 1906년경부터 피카소²⁹⁾와 브라크는 톱밥, 마분지상자, 샌드페이퍼, 거울조각, 녹슨 옷핀 등을 그림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명암법과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현실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준 것이다. 화면에 그림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 등의

26) John Golding(미술사학자), *Cubism: A History and an Analysis*, 1950, p. 107-108.

27) Alfred H. Barr, Jr, *Cubism & Abstract Art*, 1936, p. 78.

28) 김태완, 「**빠삐에 끌레**를 응용한 타피스트리의 표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4.

29) 최초의 **폴라쥬** 작품이라 평가받는 <등나무 의자>를 제작함.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빠빠에 끌레’라는 기법을 개발했을 때 꼴라주는 비로소 미술사 속에서 예술적인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³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꼴라주는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 즉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꼴라주 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결합해보고 개선하는 연속의 과정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결합과 연속의 순간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며, 창의성의 특징인 것이다.

2. 꼴라주 작가와 작품

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빠빠에 끌레의 창시자는 브라크(1882.5.13-1963.8.31)였고 청년기에 장식 화가였던 그의 경험은 나무 질감의 모방이라든지 섬세하고 풍요로운 화면효과의 창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브라크는 화면 위에 여러 조각의 종이를 조형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여러 번의 조정 끝에 위치를 정하고 그 후에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드로잉을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평면적인 종이에 표현하여 추상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색을 칠한 종이를 부분적으로 캔버스에다 발라서 파괴에 끌레 작품을 제작하면서 새로 발견한 색채의 특성을 포름이 없는 색채추상적인 조합에 의해 효과적으로 작품화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시각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실제적 대상을 추상적 구성요소인 선, 평면, 색조로 환원할 것인가를 알아냈다. 다방면에 걸친 회화적 수단을 통해 그와 유사한 색채와 질감을 자유롭게 다루는 방법을 얻게 되었다.³¹⁾

브라크는 또한 다른 매개물들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혼합되어 이루는 색채의 변화에 많은 매력을 느껴 모래뿐 아니라 톱밥, 철분 등을 도입하게 되며 여기에서 색이 어느 정도의 재료에 의존하는가를 실험하였다. 이러한 톱

30)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p. 135.

31)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 140.

밥과 석고 가루와 같은 이질적인 재료들은 그림에서 그려지기 보다는 흠뻑 려지는 느낌으로 브라크의 작품에서 재질감을 살리는데 한 몫을 하기도 하였다. 브라크가 발전시킨 꼴라주와 파피에 콜레는 회화뿐 아니라 20세기 미술에 있어 일련의 전체적인 발전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³²⁾

나.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피카소(1881.10.25-1973.4.8)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미술활동을 한 20세기의 대표적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이다. 그는 생애 동안 1만 3,500여 점의 그림과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했으며, 그의 작품 수를 전부 합치면 3만여 점이 된다. 피카소는 20세기 가장 큰 변혁을 일으켰던 큐비즘의 창시자이며, 그의 양식은 사실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그의 회화적 역사는 기법과 주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그 주제의 중심은 전쟁과 사랑, 빈곤과 절망, 노여움과 기쁨, 사랑과 성이었다.³³⁾

그의 꼴라주 작품 중에서도 1912년 발표한 「등나무의자가 있는 정물」은 피카소의 꼴라주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만든 작품이라 평가받는다. 「등나무의자가 있는 정물」에서는 빠피에 콜레의 꼴라주 기법으로 공간적 깊이감과 색채적 특징 그리고 물체의 질감을 강조해줌으로서 화면에서 잃어버린 구체적 이미지를 회복시킴과 더불어 더욱 풍부한 조형의 성과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벽지 등의 재료들을 화면에 그대로 붙이게 됨으로서 벽지의 색 등 재료의 색채가 화면에 드러나게 된다.³⁴⁾

그 외에도 브라크는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많은 작품으로 인해 브라크와 더불어 꼴라주의 전성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32) 정원호, 「조르주 브라크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14.

33) 강현신,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41.

34) 안 발다사리, 『피카소』, 창해, 2007, pp. 121-122.

다. 앙리 마티스 (Henri Emile Benoit Matisse)

색채의 마술사인 마티스(1869.12.31-1954.11.3)는 귀스타프 모로³⁵⁾에게서 먼저 화가로서의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루브르에서 대가들의 작품들을 모사하여 전통적인 간결한 회화기법을 터득하여 자신의 독창적 색채표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티스는 초기의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에 이어 후기에는 오달리스크와 아라베스크 무늬의 장식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마티스의 예술적 세계는 1929년 다시 화면이 평면으로 구성되었고, 마티스에 있어 색채는 대상에 종속하지 않는, 표현적인 것도 아닌 의미와 화면 속에서 명확한 기능을 갖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품 활동 속에서 마티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회화의 형태를 창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려 붙이기' 작업이다.³⁶⁾

강렬한 색채표현에 능수능란한 그는 말년에 심장병, 천식과 더불어 관절염, 내장 장애 등 많은 병에 걸렸다.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끊어오르는 열정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마티스는 물감대신 색종이를, 붓 대신 가위를 들고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쳤다. 그의 색지작업은 종이에 과슈로 채색하여 오려 붙이기 작업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확장하였다. 그의 색채에 나타난 푸른색과 붉은색, 노란색은 감상자로 하여금 맑고 경쾌한 느낌과 희열을 느끼게 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예술 세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생명력과 율동의 순간을 포착하여 짙은 색채와 형태로써 작품 속에 정착시켰다.³⁷⁾

마티스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실은 그가 색채의 관계를 실험하는데 있어서 색종이 오려 붙이기, 즉 그의 생애에서 가장 세련된 몇몇 작

35) 프랑스의 화가(1826-1898)로 신화나 성서에서 소재를 딴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작품으로 자신의 내적 감정을 표현했다. 면밀한 구성, 정세한 묘사, 광택 있는 색채의 약동으로 상징적이고도 탐미적인 표현세계를 구축하여, 당시로서는 대담한 표현을 했다.

36) 임정은, 「마티스 회화에 기초한 디지털 색채 팔레트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10.

37) 김지은,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27.

품을 표현하였던 빠빠에 끌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티스가 말했듯이 직접 색을 오리는 방법은 가위로 소묘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결국에는 선과 색채, 윤곽선과 표면을 하나로 결합시켜 회화의 표현 요소인 드로잉과 채색의 과정을 동시에 일체화시키는 단순화로의 귀결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40여 년 동안 마티스 예술의 원리인 종합으로서의 회화 개념에 논리적인 귀결이 된 것이며 표현 기법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³⁸⁾

라.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호크니(1937.7.9-)는 영국 팝아트의 기수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작가 중 한 사람이다. 호크니는 새로운 예술세계로 변모하는 끊임없는 탐구욕을 지닌 작가임에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포용하고 탁월한 상상력을 구사하여 새로운 양식에 도전하였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원근법으로 구성된 화면을 구사해 내는 것에서 벗어나 사진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 인식해 나가기 시작했다. 호크니는 정지된 한 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시각적인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작품 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진을 활용하여 특수한 화면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미지와 상황이 교묘하게 오버랩 되거나 합성된 방식으로 특정한 그리드의 공간에 펼쳐지는 파노라마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현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일련의 파노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넓은 공간을 연출하기도 하였다.³⁹⁾

1980년대 초 그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찍고 이것들을 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같은 위치에서 찍는다 해도 카메라의 높이, 노출에 등 미세한 차이에 따라 잘라 붙인 조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생

38) 정청자, 「양리 마티스의 회화작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30.

39) 박기웅, 『21세기 회화 이론 및 방법』, 형설출판사, 2005, pp. 72-73.

기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호크니는 병존할 수 없는 3차원의 현실세계와 회화의 2차원적 측면이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로소 화면을 재구성 하며 작품 세계를 펼쳐갔다.

호크니의 작업은 이러한 다시점을 통해 낯장의 사진이 지니는 한계인 원근법에 의해 영원히 멈추어진 상태로 있는 정지된 시간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호크니 포토 플라주의 파노라마적인 화면은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이전 회화가 지녔던 시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 관람자를 존재 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화면의 해체와 해체된 화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벗어나지 못했던 원근법에서의 탈피와 함께 그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진정한 리얼리티의 구현이 그의 작업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⁰⁾

40) 장지영,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49.

3.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미술활동에 플라쥬의 개념과 그 기법을 반영해 볼 수 있다. 플라쥬는 알려진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작업이고 직감이나 감각 등의 비합리적인 기능을 이용한 활동이다. 활동의 과정 중에서 관심과 흥미를 분명히 해주며, 사진이나 그림만을 이용하여서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치료 기법은 계속적으로 작품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불안이나 문제점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이를 개방시켜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플라쥬의 활동에는 선택성과 회피성이 있어서, 작품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알게 되고, 종이를 오리고 붙이면서 심리적 퇴행이 나타나며 방어가 적어 자기 표출도 용이하다. 이러한 치료의 속성은 평범한 재료를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아니거나, 잘라 내거나 아니거나, 결국 선택했다라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안정성과 회피성에 있는 것이다. 또한 드로잉 등으로부터 잘라내서 홀트린다고 하는 분산성과 도화지에 붙여 정리를 한다는 통일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⁴¹⁾

플라쥬는 1972년에 의사인 벽과 작업치료사인 프로벤처가 재활장면에서 활동이나 평가법으로 사용하면서 미술작업치료지에 평가기법으로서 개제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특히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빠빠에 플레라 부른다'고 되어 있다. 즉, '빠빠에 플레'는 플라쥬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플라쥬와 빠빠에 플레는 기법을 일컫는 말이다. 가장 분명하게 플라쥬와 빠빠에 플레를 구분해 놓은 기술은 골딩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가 갖는 조형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만 빠빠에 플레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모두 플라쥬로 정의한다고 하였다.⁴²⁾ 미국에서 평가기법으로 시작된 플라쥬 기법은 이후 1988년경부터 일본의 모리타니 히로유키와 스키우라 교오코(杉浦京子)에 의해 잡지그림을 사용하는 플라쥬가 모래놀이의 상자를 평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치료기법으로서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다.⁴³⁾

플라쥬를 통한 미술활동의 특징은 언어 표현보다 정확하고 구상적이고 집

41) 서정연, 「낮은 자존감과 미술치유」,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11.

42) 정준모, 「플라쥬 기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5.

43) 이근매 외, 위외책, p. 73.

약적이며 상징표현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그림을 그릴 때 저항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입이 쉽고, 기술적으로 간단하므로 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표현의 방법에 의해 그 삶의 성격 또는 병리성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제작법에 의해 내담자와 치료사의 교류가 쉽고, 모자상호법의 경우에는 모자간의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개선되어진다. 심리치료학과의 어떠한 기법에도 좌우되지 않고 그것과 융합하여 행할 수 있고, 대상자의 적용범위도 넓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⁴⁴⁾

플라주를 통한 미술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플라주박스(Collage Box)법이다. 이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없고 치료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 또는 그림을 오려 모아 담아 놓거나, 혹은 그 밖에 마음에 드는 그림 조각을 골라서 붙이거나 활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치료자 자신이 잡지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자유롭게 잘라 붙여 치료자의 창의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잡지그림 플라주(Magazine Picture Collage)법이 있다. 이 방법은 색종이, 잡지, 팜프렛, 신문, 가위, 풀, 합판, 마분지 등을 사용하여 5-50분 정도의 시간동안 실시 할 수 있는데 구상-밑그림-붙이기-정리-건조의 순으로 진행한 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한다. 이렇게 손으로 찢거나 가위로 잘라서 혹은 밑그림을 그린 후에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바로 그림을 붙여 나가기도 한다. 뾰족한 가위는 환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끝이 둥근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잡지나 팜플렛을 사용하는 경우엔 그림 장면이 많은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하여 플라주의 작품을 내담자가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미술작품과 같은 형식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당한 그림을 찾아 붙여 구성하고 상호 이야기 해 나가는 방법이 내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입장에서 많이 애용되고 있다.⁴⁵⁾

플라주는 자신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붙여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미술적인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44) 공정미, 「플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생활재활교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19.

45) 박상근, 「콜라주 기법이 ADHD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플라쥬 활동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재료를 자기 마음대로 자르거나 찢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개방시킬 수 있어, 환자의 내재된 심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4. 자아존중감과 플라쥬 미술활동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 성공, 가치, 중요성 등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정도를 표현한 것이다"⁴⁶⁾ 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본인 스스로 믿는 정도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 독자적으로 자존감을 형성하고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⁴⁷⁾ 인간의 생활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질풍노도기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우울증, 죄책감, 거절, 수치심, 또는 불안 에 대한 두려움, 우유부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치 보는 생활, 모호한 정체감, 방어적 기제, 자신감 부족, 학습부진, 탐욕, 의심, 질투, 불신,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 사회적 사고기술의 부족 등의 현상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박찬옥(1989)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밝혀내기도 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해결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점수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46) Stanley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Sanfrancisco, 1967.

47) 심리학자 에릭슨(Erikson)은 그의 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청소년시기에 자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겼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존감이 성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본 결과, 상위 중·하위 층에 속한 청소년들보다는 중위 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두 변인, 즉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력 간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양극단에 있는 청소년보다 중위 층의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플라쥬⁴⁸⁾를 활용한 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시켜줄 수 있다.

플라쥬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내면에 잠재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훌륭한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플라쥬를 하는 것만으로 독창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물 재료를 통해 다양한 결합 활동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는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플라쥬에 대한 이해는 곧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정도로 피카소와 브라크의 플라쥬 실험은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미술사에 있어 피카소의 플라쥬 표현 양식은 무엇인가를 창작한다는 것이 작가의 절대적인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결과라는 인식의 전환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플라쥬의 표현 과정은 시각 디자인의 발상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플라쥬를 응용하는 실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오늘 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 매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플라쥬는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와 서로 결합시킨다는 특성 때문에 작가 외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교과와의 통합적인 플라쥬 수업을 통해 대중 매체의 속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

48) 본격적으로 플라쥬가 등장한 것은 러시아 성상으로 보석이나 성상의 상부 장식이나 벽지 형태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이다.

제 3 장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에 위치한 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4개 학급 총 131명(A학급 : 34명, B학급 : 32명, C학급 : 33명, D학급 : 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 중 A, B 학급의 학생들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 기간 중 어떠한 참여과정 없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만 실시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인 C, D학급의 학생들은 실험 기간 중 사전검사 실시 후, 6회기의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에 참여케 하였다. 미술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실험집단인 C, D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표 2>와 같다.

<표 2 - 6회기 동안의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내용>

회 기	활동 주제
1주차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소개 (오리엔테이션)
2주차	사람 플라주
3주차	이름 플라주
4주차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플라주
5주차	생일 카드 플라주
6주차	동화책 플라주

1주차는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소개’하는 시간으로 플라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간단한 플라쥬 미술활동을 실시하였다. 잡지, 신문지를 보고 자기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골라 붙이기하고 그림을 첨가한 후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플라쥬에 대한 이해와 긴장감을 해소하고 연구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플라쥬 미술활동의 일환으로 사람 플라쥬 활동을 실시하였다. 잡지나 신문지를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골라 찢어 붙이기를 한 후 느낌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아 인식과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주차 이름 플라쥬 회기엔 자신의 이름을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 한 후 색종이나, 스티커를 자르고 붙여서 자신의 이름을 꾸미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주차는 먹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플라쥬 활동, 5주차와 6주차는 생일 카드 플라쥬와 동화책 플라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주의 집중 및 자아존중감 향상, 욕구 표출을 통한 정신건강 향상, 친구 간 친밀감 형성 등 정신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2절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실시된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우선 광주소재 여자중학교의 2학년의 여러 학급 중, 4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해, 이들을 각각 통제집단(A, B학급 : 66명)과 실험집단 (C, D학급 : 65명)으로 구분하였다.
- 2) 통제집단인 A, B학급과 실험집단인 C, D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시작 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실험집단에 배정된 C, D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16시부터 16시45분까지 해당 학급의 교실에서 주1회 45분씩 6주 동안 총 6회기에 걸쳐 미술활동을 진행하였다.
- 4)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 매 회기마다 미술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5) 6회기의 모든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인

A, B학급과 C, D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6) 또한 A, B학급과 C, D학급에서 실시한 사전 검사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학생 5명에 대한 세부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절 측정도구

1. 정신건강 척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영국의 골드버그(David Goldberg)⁴⁹⁾가 개발한 정신건강척도 GHQ를 신선인⁵⁰⁾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개발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 KGHQ-20문항를 사용하였다. GHQ는 응답자의 지난 2~3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응답자의 평소 심리상태와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며,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 응답자가 쉽게 답할 수 있으며 조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불안요인, 우울요인, 사회적 부적응과 외출 빈도 4가지로 분류하여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에 의해 설정된 하위요인을 별도로 분석하기 위해 리커트식 4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하였다. 부정 문항(2, 5, 6, 9, 10, 12, 13, 14번)에 대해선 역 점수처리 하였다. 이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9) 골드버그(미국의 정신과 의사), 1972년 정신건강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개발 당시 정신적 병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50) 신선인(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판 일반정신척도(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6호, 2001, pp. 210-235.

2.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최보가⁵¹⁾와 전귀연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 6문항, 친구와 타인 간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사회적 자아 9문항, 가정과 관련되는 가정에서의 자아 9문항, 학교에서 적응에 관련되는 학교에서의 자아 8문항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4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하였으며, 부정 진술 문항(4,8,12,16,20,24,27,30)의 경우는 역으로 환산 채점 처리하였다. 이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51) 최보가(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외,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 1993, pp. 41-54.

제4절 자료처리

1. 통계적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미술 활동 회기를 중심으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점수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은 t검증⁵²⁾을 실시하였고 검증에 대한 유의수준은 .01로 하였다.

2. 미술활동에 따른 행동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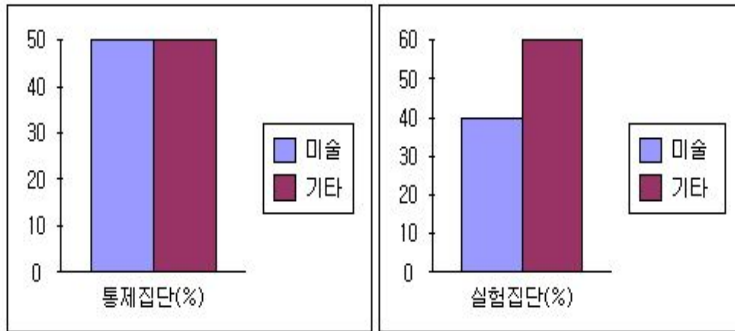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사전, 사후 검사의 통계적 검증은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집단에 속해 미술 활동에 참가한 실험집단(C, D학급)의 학생들에게 매 회기별로 미술 활동이 끝난 후, 미술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아쉬운 점, 미술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미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분석하여, 양적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52) 독립된 두 개의 표본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 또한 두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때도 이용되며, 동일한 표본에서 두 개의 변인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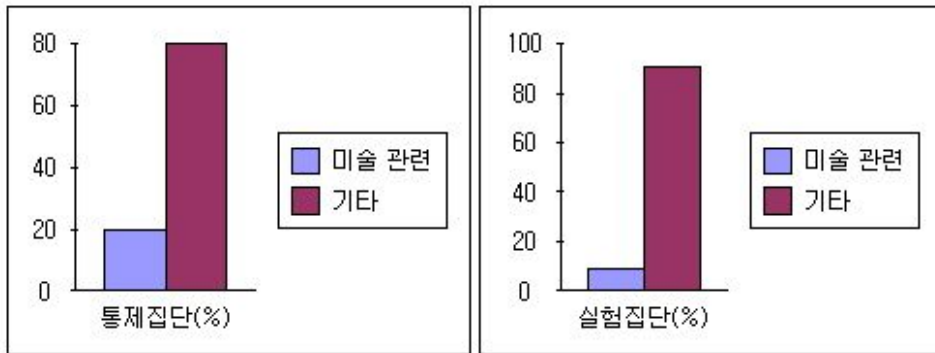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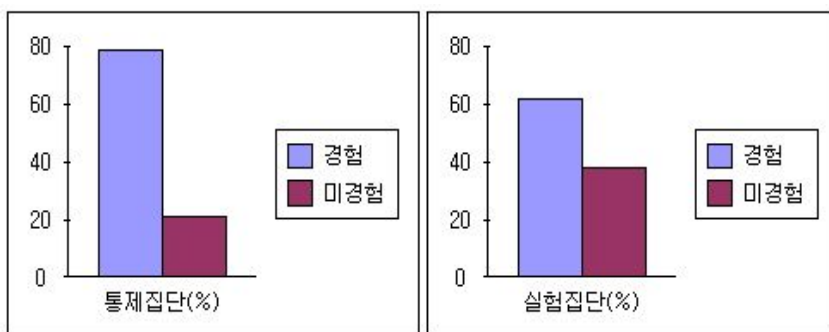
연구 대상자 131명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한 달 용돈, 좋아하는 과목, 취미, 미술 학원 경험의 유무 등) 을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5대 5에 가까웠으며 연령은 모두 14~15살이었다. 보호자는 통제집단이 양친 49명, 어머니 7명, 아버지 10명, 실험집단이 양친 44명, 어머니 13명, 아버지 8명으로 두 집단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양친이 모두 없는 학생은 없었다. 한 달 용돈은 두 집단 모두 1만~3만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중복체크를 허용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응답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체육이 가장 높았으며, 미술을 좋아하는 과목으로 응답한 인원은 통제집단은 50%(33명), 실험집단은 40%(26명)이었다. 중복체크를 허용한 '취미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게임이나 운동 등이라고 답했으며, 미술 활동, 만화 그리기 등 미술에 관련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통제집단 20%(13명), 실험집단 9%(6명)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한 번이라도 미술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통제집단 79%(58명), 62%(40명)이었다.



<그래프 1 -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그래프 2 - 취미 활동에 관한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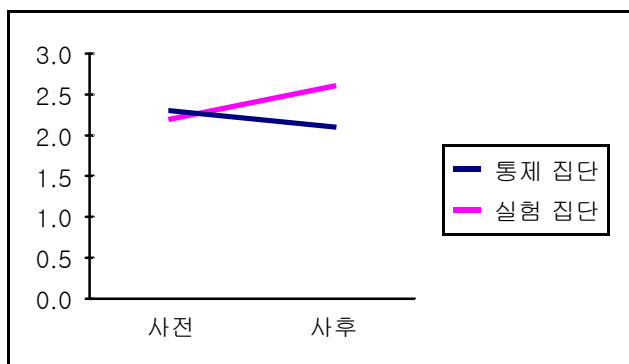
<그래프 3 - 미술 학원 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제2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 시작 전후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평균 차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3> 및 <그래프4>와 같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명	평균	표준 편차	명	평균	표준 편차	
통제집단	66	2.4	.213	66	2.3	.227	.683
실험집단	65	2.3	.198	65	2.7	.169	1.294* *

<표 3 - 통제,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그래프 4 - 통제,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 사전, 사후 차이 비교>

통제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값은 2.40점이고, 실험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값은 2.30점이었다. 하지만 6주 간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평균값이 2.70점으로 0.4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경우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정신건강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점수	평균	점수	평균
A	1.8	1.68	1.2	1.60
B	1.9		1.7	
C	1.6		1.6	
D	1.8		1.9	
E	1.3		1.6	

<표 4 - 집단 별 사전 정신건강 점수 하위 5명 학생 사전 검사 점수>

학생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점수	평균	점수	평균
A	1.7	1.66	1.9	1.92
B	2.0		2.1	
C	1.5		1.6	
D	1.7		2.2	
E	1.4		1.8	

<표 5 - 집단 별 사전 정신건강 점수 하위 5명 학생 사후 검사 점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각 집단 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5명의 학생들을 선정,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플라쥬 미술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신건강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전 정신건강 점수는 A학생 1.8점, B학생 1.9점, C학생 1.6점, D학생 1.8점, E학생 1.3점이었다. 이들의 사전 정신건강 평균 점수는 1.68이었다 한편 실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신건강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전 정신건강 점수는 A학생 1.2점, B학생 1.7점, C학생 1.6점, D학생 1.9점, E학생 1.6점이었다. 이들의 사전 정신건강 평균 점수는 1.60점으로 통제집단의 1.68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실험 집단의 학생들에게 6회기의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실시한 후, 실시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신건강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후 정신건강 점수가 A학생 1.7점, B학생 2.0점, C학생 1.5점, D학생 1.7점, E학생 1.4점, 평균 점수 1.66점으로 사전 정신건강 점수인 1.68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실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신건강 점수를 기록했던 5명 학생들의 사후 정신건강 점수는 A학생 1.9점, B학생 2.1점, C학생 1.6점, D학생 2.2점, E학생 1.8점, 평균 점수 1.92점으로 평균 점수의 0.32점 상승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1.2점으로 가장 낮은 사전 정신건강 점수를 보였던 실험 집단 A학생의 경우, 6회기의 플라쥬 미술활동 후 실시한 사후 정신건강 점수에서 0.7점이라는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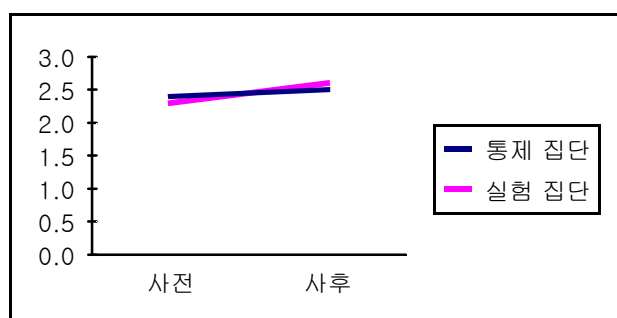
제3절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평균 차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 및 <그래프5>와 같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명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통제집단	66	2.3	.179	66	2.3	.197	.814
실험집단	65	2.2	.191	65	2.5	.179	1.334**

<표 6 - 통제, 실험 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그래프 5 - 통제, 실험 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차이 비교>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값은 2.30점이고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값은 2.20점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후검사결과 평균값은 2.30점으로 사전검사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후 평균값이 2.50점으로 0.3점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집 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점수	평균	점수	평균
A	1.3	1.44	1.6	1.46
B	1.5		1.2	
C	1.4		1.7	
D	1.8		1.4	
E	1.2		1.4	

<표7-집단 별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하위 5명 학생의 사전 검사 점수>

집 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점수	평균	점수	평균
A	1.5	1.52	1.7	1.56
B	1.3		1.6	
C	1.5		1.5	
D	1.9		1.6	
E	1.4		1.4	

<표8-집단 별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 하위 5명 학생의 사후 검사 점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역시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집단 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5

명의 학생들을 선정, 이들의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특별한 풀라쥬 미술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는 A학생 1.3, B학생 1.5점, C학생 1.4점, D학생 1.8점, E학생 1.2점이었으며, 이들의 사전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1.44점이었다. 한편 실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는 A학생 1.6점, B학생 1.2점, C학생 1.7점, D학생 1.4점, E학생 1.4점이었으며, 이들의 사전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1.46점으로 통제집단의 1.44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실험 집단의 학생들에게 6회기의 풀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실시한 후, 실시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기록한 5명 학생들의 사후 자아존중감 점수는 A학생 1.5점, B학생 1.3점, C학생 1.5점, D학생 1.9점, E학생 1.4점, 평균 점수 1.52점으로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인 1.44에 비해 소폭(0.08점)의 상승세를 보였다. 실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기록했던 5명 학생들의 사후 자아존중감 점수는 A학생 1.7점, B학생 1.6점, C학생 1.5점, D학생 1.6점, E학생 1.4점, 평균 점수 1.56점이었다. 실험 집단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0.1점 상승하는데 그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 학생들에 대한 풀라쥬 미술활동 후의 자아존중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 별 검사에서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유의할만한 상승폭이 나타나긴 했지만, 풀라쥬 미술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있어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결과였다.

제4절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구체적 변화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꼴라쥬 미술활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완 방법의 일환으로 매번 꼴라쥬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험집단인 C, D 학급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중, 정신건강 척도 사전 사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A학생(0.7점 상승)과 B학생(0.4점 상승), D학생(0.3점 상승)에 대한 자세한 행동변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 1

A학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학생으로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가정 형편 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으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관심받기 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초기인 1주차 ‘꼴라쥬 미술활동 소개’ 시간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미술활동에 흥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소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였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등, 수업에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친밀감을 쌓기 위한 질문 등 어떤 말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2, 3주차의 꼴라쥬 미술활동 시간에는 미술도구를 이용해 다른 짓을 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등,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A학생은 꼴라쥬 미술활동 초기단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꼴라쥬 미술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4주차 ‘먹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꼴라쥬 하기’ 에 조금의 변화가 생겨났다. A학생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꼴라쥬 해보라는 연구자의 말에 갑자기 종이를 찢어 짜장면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설픈 솜씨로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지만, 이에 연구자가 칭찬을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신이 난 듯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5주차 ‘생일 카드 플라쥬’ 시간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회기 시간 동안 플라쥬 미술활동에 집중해 생일카드를 만드는 동안에 주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등 매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6회기에선 플라쥬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 표정이 밝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미술작품을 할아버지에게 선물함으로써 칭찬을 받았던 일은 연구자에게 자랑하기도 했고, 미술활동이 끝난 후, 자발적으로 미술도구 정리와 주변 청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 사례 2

B학생은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B학생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이었다. 플라쥬 미술활동 초기 단계에서는 얼굴 표정이 다소 굳어 있고 부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2주차 ‘사람 플라쥬’ 시간에 B학생에게 다가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를 물으니 ‘그런 거 없어요.’ 라며 통명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연구자와의 교감형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B학생의 성향은 3주차 ‘이름 플라쥬’ 와 4주차의 ‘먹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 플라쥬 하기’ 시간까지 이어졌다. B학생은 플라쥬 미술활동을 건성건성 시간 때우기 식으로만 생각하는지 작품 활동에 별 관심이 없고 주변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다른 짓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듯 했다. 하지만 5주차 ‘생일 카드 플라쥬’ 미술활동을 통해 변화가 나타났다. 다른 회기보다 조금은 정성을 들여 플라쥬 활동을 하려는 듯 한 행동을 보여 연구자가 ‘오늘 우리 OO가 되게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하자 ‘다음 주가 제 생일이거든요’ 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맞장구를 쳐주며 ‘생일 카드를 만들어 선생님도 초대해주면 선생님이 선물 사다줘야겠네.’ 라는 말을 하자 무심히 못들은 척 하였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품 활동을 하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카드들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였는데, 이후 미술활동 소감문을 통해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주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 했다. 6주차 협동작업을 통한 ‘동화책 플라쥬 하기’ 시간엔 다른 어떤 회기보다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주변 친구들과의 합동 작품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B학생의 경우 초반에 비해 5회기 이후의 플라쥬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3. 사례 3

C학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조손가정의 학생이다. C학생은 회기 초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미술활동에 대한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넘치며, 이로 인해 주변 친구들과의 협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플라쥬 미술활동 회기 초반에는 말수도 없고 수업 중에 같이 앉아 있는 짝과만 가끔씩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C학생은 매우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구자는 물론 다른 주변 친구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플라쥬 미술활동에 다른 학생처럼 어느 정도의 참여는 보이고 있지만 단지 플라쥬 미술활동 자체에만 집중할 뿐 다른 친구 혹은 연구자와의 교감을 쌓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하지만 플라쥬 미술활동 회기가 중반 단계로 갈수록 이전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플라쥬 미술활동 중 3주차 부터는 자신의 작품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평가하거나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재미난 플라쥬 해보기’의 과정을 통해 혼자만의 활동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 결과라 생각한다. 미술활동을 통해 평소 교류가 별로 없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5주차와 6주차 수업에서는 이전보다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이나 다른 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을 보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한 6주

차의 동화책을 만드는 꼴라쥬 미술활동에서는 주변 친구들과의 협동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등, 이전 회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제 5 장 결 론

정보화, 대중화, 전통과의 단절현상 등이 특징인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등이 팽배해지면서 가치체계의 혼란을 가져와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속성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새로운 심상을 발견하거나 청소년의 창의성 계발이 가능하고, 내외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욕구에 대한 불만 해소, 거부감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활동의 다양한 기법 중,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주시 소재의 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개 학급 1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인 A, B학급과 실험집단인 C, D학급으로 구분해, 미술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아져,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참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는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 및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자아존중감 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성인이나 아동들이었으며, 우울과 문제 행동 등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있어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실제 교과 과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교과과정은 입시에 지나치게 편중된 탓에 청소년 심신 향상을 위한 미술, 체육, 음악 등의 교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술을 포함한 예체능 교과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체능 교사들은 교과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향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혹은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실제 교육과정에 이를 적용시킴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예체능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적용 기법의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전문 상담 교사의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회기가 6회기로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실시된 기간이 6회기라는 시간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 인원이 131명에 불과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이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양분화 하였기 때문에 플라쥬 미술활동 회기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인원은 65명에 불과했다. 65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플라쥬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건강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연구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 5명의 하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향후 후속연구는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풀라쥬 미술활동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권준범 외, 『미술교육사』, 교육과학사, 2000
- 김성희, 『전공미술』, 서울, 2006
-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갑을 출판사, 1989
- 박기웅, 『21세기 회화 이론 및 방법』, 형설출판사, 2005
- 안 발다사리, 『피카소』, 창해, 2007
- 이근매 외, 『미술치료개론』, 학지사, 2005
- 이근매 외,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8
- 이 민 외, 『전공 미술』, 신수서원, 2006
-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 진교훈 외, 『오늘의 철학적 인간』, 경문사, 1999
- Malchiodi.C.A, 『미술치료』, 조형교육, 1997

학위논문

- 가은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현신,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공정이, 「플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생활재활교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인실, 「중등 미술 교육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지은,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태완, 「빠빠에 꼴레를 응용한 타피스트리의 표현 연구」, 원광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1997
- 권준범, 「미술심리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상근, 「콜라주 기법이 ADHD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백현주, 「중학교 미술교육의 창의성증진 학습지도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서정연, 「낮은 자존감과 미술치유」,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선인, 「한국판 일반정신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6호, 2001
 - 이희정,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임정은, 「마티스 회화에 기초한 디지털 색채 팔레트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성금, 「자폐장애가 있는 초기 청소년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지영,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원호, 「조르주 브라크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준모, 「콜라주 기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청자, 「앙리 마티스의 회화작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1
 -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한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차혜경, 「미술치료의 정신적 안정 효과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동령,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보가 외,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1993

외국문헌

- Alfred H. Barr. Jr, 『*Cubism & Abstract Art*』 , Belknap press, 1986
- Elizabeth Cowling 외, 『*Matisse Picasso*』 , The Museum of Modern Art, 2002
- John Golding, 『*Cubism : A History and an Analysis*』 , Icon, 2000
- Stanley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 W. H. Freeman, Sanfrancisco, 1967

부록 1

미술 활동 소감문

학 년		반		번 호		이 름	
일 시						장 소	
활 동 명							
활동 내용							
소 감							

부록 2

아래 문항들은 ‘플라쥬를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비밀로 하며, 단지 순수한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본인의 현재 느끼고 있는 심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반적 특징

1. 학생의 연령은 몇 살인가요?

- ① 11세-12세 () ② 13세-14세 ()
③ 15세-16세 () ④ 17세-18세 ()

2. 학생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 자 () ② 여 자 ()

3. 학생의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 ① 양 친 () ② 어머니 () ③ 아버지 ()
④ 조부모 () ⑤ 기 타 ()

4.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 ① 5천원-1만원 () ② 1만원-2만원 () ③ 2만원-3만원 ()
④ 3만원-4만원 () ⑤ 4만원-5만원 () ⑥ 기 타 ()

5.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기하세요)

- ① 국어 () ② 영어 () ③ 수학 () ④ 과학 ()
⑤ 사회 () ⑥ 음악 () ⑦ 미술 () ⑧ 체육 () ⑨ 기 타 ()

6. 학생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기하세요)

- ① 독 서 () ② 음악 감상 () ③ 운 동 ()
④ 노래하기 () ⑤ 게 임 () ⑥ 만화그리기 ()
⑦ 미술활동 () ⑧ 여 행 () ⑨ 기 타 ()

7. 미술학원에 다닌 경험은 있나요?

- ① 있 다 () ② 없 다 ()

정신건강 척도

() 학교 () 반() 번 이름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 면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느꼈습니까?				
항상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습니까?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우울감과 불행 감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				
그 전과 같은 정도로 외출을 하였습니까?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신경이 쓰여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습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설치곤 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지인들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타인과 잘 지내게 어렵지 않게 느꼈습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나는 나의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

() 학교 () 반() 번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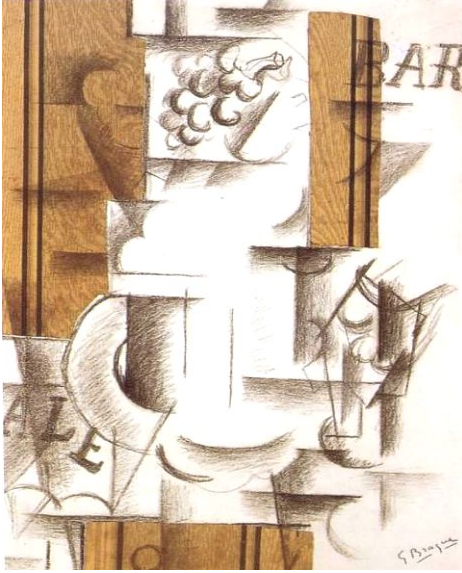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나는 친구들이 많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 주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나를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				
선생님의 설명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부록 5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회기별 미술 치료 프로그램 내용

회 기	활동 주제	활동 내용	기대효과
1주차	폴라쥬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 소개 (오리엔테이션)	잡지, 신문지를 보고 자기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골라 붙이기하고 그림을 첨가한 후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폴라쥬에 대한 이해 2. 긴장감 해소 및 연구자와의 친밀감 형성
2주차	사람 폴라쥬	잡지, 신문지를 보고 사람을 골라 찢어 붙이기를 한 후 느낌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야기를 나눈다.	1. 자기 인식과 자기 욕구 표현
3주차	이름 폴라쥬	자신의 이름을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 한 후 색종이나, 스티커를 자르고 붙여서 자신의 이름을 꾸민다.	2. 주의집중 및 자아존중감 향상
4주차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폴라쥬	원이 그려진 도화지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여 작업한 후 이야기를 나눈다.	1. 주의집중 및 욕구 표출을 통한 정신건강 향상
5주차	생일 카드 폴라쥬	자신의 생일이라 가정하고, 초대카드를 폴라쥬 기법으로 만들어 가족, 친구에게 선물한다.	1. 자아존중감 향상
6주차	동화책 폴라쥬	친구 간 협동 작품으로 좋아하는 동화책 스토리에 관해 작업한 후 이야기를 나눈다.	1. 친구 간 친밀감 형성과 자아존중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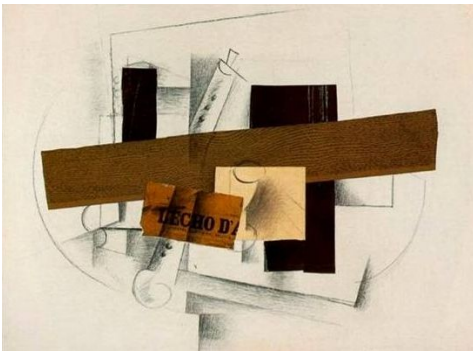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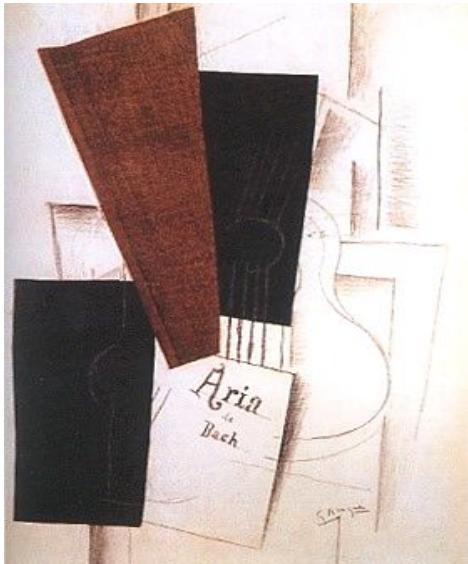
(도판 1)



(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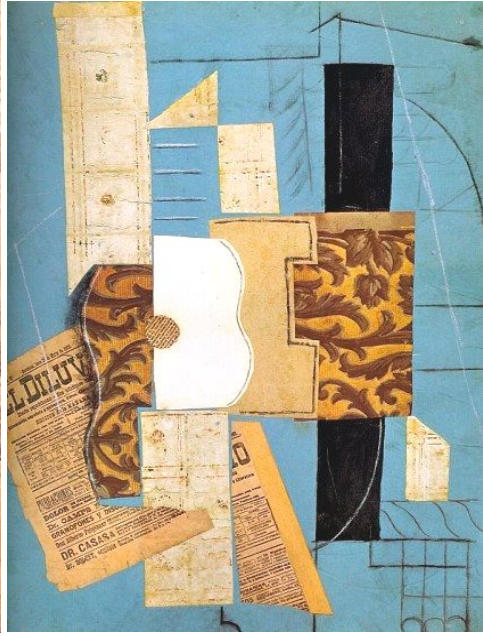
(도판 3)



(도판 4)



(도판 5)



(도판 6)



(도판 7)



(도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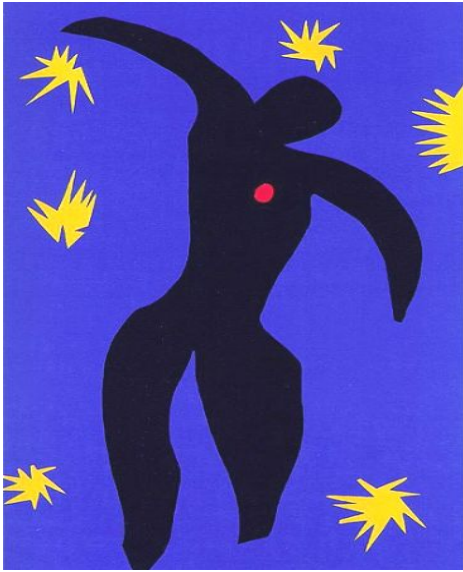
(도판 9)



(도판 10)



(도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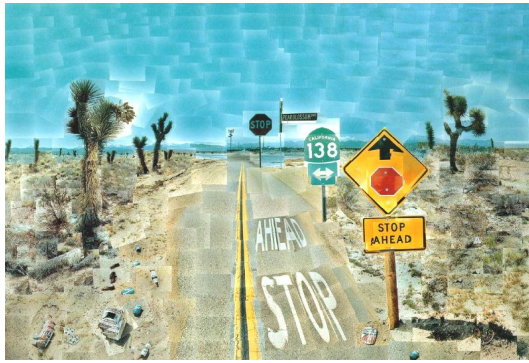
(도판 12)



(도판 13)



(도판 14)



(도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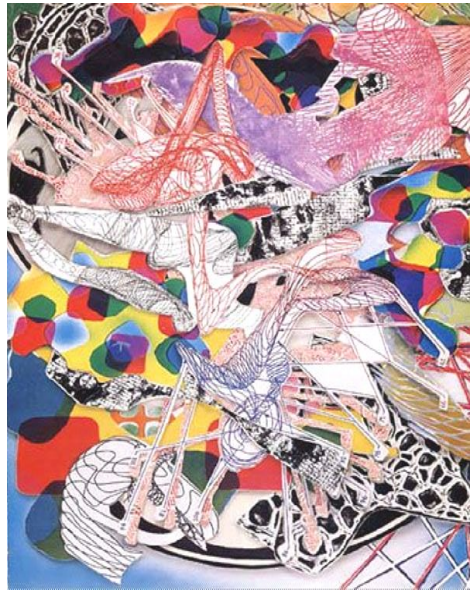
(도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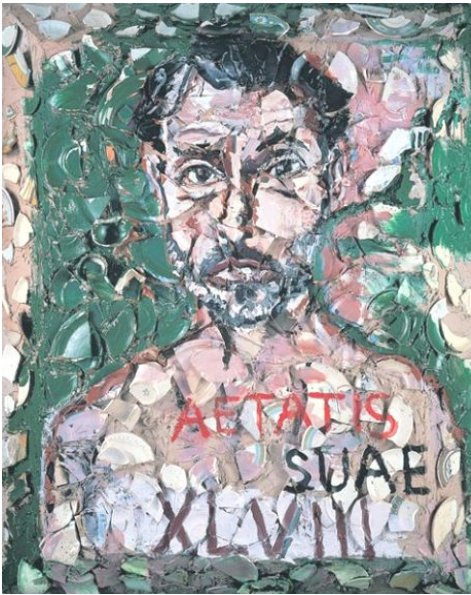
(도판 17)



(도판 18)



(도판 19)



(도판 20)



(도판 21)